달라스 성 김대건 성당
ST. ANDREW KIM CATHOLIC CHURCH

대건 주보

2023년 2월 26일 사순 제1주일 제 259851호

오늘의 전례

[입당송]
나를 부르면 나 그에게 대답하고 그를 해방시켜 영예롭게 하리라. 오래오래 살도록 그에게 복을 내리리라.

[제 1 독서] 창세기 2,7-9; 3,1-7

[화답송] 시편 51(50),3-4.5-6ㄱㄴ.12-13.14와 17(◎ 3ㄱ 참조)

◎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 하느님, 당신 자애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의 죄악을 없애 주소서. 제 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제 잘못을 깨끗이 지워 주소서. ◎
○ 제 죄악을 제가 알고 있사오며, 제 잘못이 언제나 제 앞에 있나이다.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 잘못을 저지르고, 당신 눈앞에서 악한 짓을 하였나이다. ◎
○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당신 앞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
○ 구원의 기쁨을 제게 돌려주시고, 순종의 영으로 저를 받쳐 주소서. 주님, 제 입술을 열어 주소서. 제 입이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

[제 2 독서] 로마서 5,12-19

[복음환호송]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복음] 마태오 4,1-11

[영성체송]
주님의 기적들을 낱낱이 전하오리다. 지극히 높으신 분, 저는 당신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당신 이름 찬미하나이다.

[성가]	시작	115	봉헌	513	성체	179	파견	119

미사안내

주일	토요일	5:00 PM 한국어
	일요일	10:00 AM 한국어
		12:00 PM 영 어
		3:00 PM 한국어
평일	화 · 목	7:30 PM 한국어
	수 · 금	10:00 AM 한국어

성사안내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 전-고해실
유아세례	2,5,8,11월 첫째 토요일
혼인성사	사무실에 6개월 전에 신청
성 시 간	매월 첫째 목요일 미사 후

성당정보

사 제 관	김남길 대건 안드레아 972-351-8142
수 녀 원	이체칠리아,김연희마리아 214-762-5794
사 무 실	972-620-9150
종신부제	이시훈 사도요한 214-668-2862
사목회장	한재민 야고보 214-475-0619
팩 스	972-484-4628
주 소	2111 Camino Lago Irving TX 75039

예비자교리	일 11:00AM - 12:15 PM
성경 공부반	수 7:00 PM (남성반) 이 요한 부제
	수 11:00 AM 이 체칠리아 수녀
사무실 업무시간	일 9:00 AM - 6:00 PM
	월 휴무
	화 · 목 12:30 PM - 8:30 PM
	수 · 금 9:30 AM - 6:00 PM
	토 10:00 AM - 6:30 PM

홈페이지 : www.dallaskoreancatholic.org 이메일 : office@dallaskoreancatholic.org

본당 모임 및 교육

본당 사목 단체 월례회

사목회의	(마지막, 일)3시 미사후
재정회의	(셋째 화) 미사후
전례회의	(마지막, 화) 미사후
구역장회의	(첫째 토) 3 PM
성찬봉사회	(둘째 목) 미사후
성모회	(첫째 화) 미사후
학부모회	(셋째 일) 1 PM
대건회,70대	(넷째 일) 10시 미사후
하상회,60대	(셋째 일) 10시 미사후
이냐시오회,50대	(셋째 일) 10시 미사후
사도회,40대	(넷째 일) 10시 미사후
토마스회,30대	(셋째 토) 4 PM
주일학교&청소년	(일)10:00 AM-11:15 AM
한국학교	(토) 9:30 AM-12:30 PM

레지오 마리애 주회

순교자들의모후	(화) 5:00 PM
사랑의 샘	(화) 6:00 PM
십자가의 모후	(화) 6:00 PM
천사들의 모후	(일) 11:30 AM
신자들의 모후	(화) 5:30 PM
평화의 모후	(토) 3:30 PM
자비의 모후	(토) 6:15 PM
황금궁전	(일) 11:30 AM
사도들의 모후	(일) 11:30 AM
구세주의 모후	(일) 11:30 AM
하늘의 모후	(일) 11:30 AM
로사리오의 모후	(일) 11:30 AM
승리의 모후	(토) 3:30 PM
즐거움의 샘(Jr.)	(일) 9:00 AM

본당 제단체 모임

성령기도회	(목) 미사후
울뜨레야	(둘째 일)
꾸리아	(셋째 일)12:30 PM
쎌기도	(금) 미사 후
쎌기도	(2,3주일)10시미사후
청년회	(토) 6 PM
교사회	(일) 9:15 AM
콜롬버스기사회	(넷째 일) 1:30 PM
청소년 복사단	(첫째 일) 1:30 PM
복사단 자모회	(첫째 일) 1:30 PM
연령회	(마지막 목) 6 PM
도서실운영회	(둘째 일) 2 PM
이냐시오영성 (CLC)	(월,수,목) 8 PM
거룩한 독서	(화) 10 AM, Zoom
성경100주간	(금) 8 PM, Zoom
복자재속회	(셋째 일) 5 PM

구역 연락처(13구역)

총구역장	817-721-5050
알랜,맥키니	732-343-0068
캐롤톤	972-800-0730
코펠	214-709-5772
N. 코펠	480-465-3853
던컨빌	214-923-1974
갈랜드	972-795-9706
얼빙	214-289-1225
E. 프리스코	469-925-9343
W.프리스코	214-801-8009
E. 플래노	469-468-4124
W. 플래노	972-333-5223
리차드슨	214-701-7688
밸리랜치	214-664-0158

교우 업체 소개

Smartec
보안카메라/네트워크/오디오/비디오
설치, 수리 및 관리 전문 업체
우병태 라우렌시오
Tel 214-629-2663
info1@onesmartec.com

노바 덴탈
김하운 소피아
Tel (817) 462-1022
1231 E. Pioneer Pkwy #101
Arlington, TX 76010

National Life Group
슬기로운 은퇴, 자녀 유산 준비
IRA, 연금, 사업체 절세 플랜
469-387-9541 무료 상담 대환영
ko_kwang@nlgroupmail.com
고광범 요한(Financial Professional)

Celebration Co.
Wedding, First Communion, Baptism
11818 Harry Hines #224 Dallas
972-243-2400
www.celebrationdallas.com
MON~SAT 10:30-7

안나 케어
간병보호, 동행, 메디케이드/서류/통역
469-206-0158 (PA 간병보호사 문의)
www.annacaretx.com
은혜노인복지센터와 프로그램 협력

찬마루 CHANMARU
갤러리아 마켓 몰
972-695-6242
4070 SH 121 #220
Carrollton TX 75010
박진숙 데레사

O K 에어콘
대표 이정기
설치 및 수리 (주택/ 상업용)
214-769-3377, 469-774-3377
zzokac@gmail.com

E & K Electric
전기의 모든 것
한정관 요셉
Tel 972-955-6156

살롱 드 아르떼
미용실 (시온마켓 2층)
972-704-5639
앤디(베드로), 유리(카타리나)
현하(엘리사벳)

홍선희 치과
Midway Dental
Fastbraces로 치아교정, 3-12개월
972-241-6862
13740 Midway Rd#506
Dallas, TX75244

한라산소주, 대선 화요, 좋은데이
텍사스 총딴
Tel 917-794-9684
min@eveenterprisellc.com

Greenhill Insurance
Business | Auto | Home | Medicare
(972) 243-3598
11498 Luna Road Ste 101
Dallas, TX 75234

조앤박부동산
JOANNE PARK REALTOR
<주택,새집,이주 정착 풀서비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에이전트
Keller Williams, 박성아 소화데레사
Realtorjoanne73@gmail.com
(214) 770-6494

MDMartin
MARK LEE 스태핑 . 컨설팅 사이트 메니지먼트
Tel 214-991-5026
mark@mdmartinstaffing.com
www.mdmartinstaffing.com

Shine Learning Center
CHRISTY LEE
미술 I 영어 I 수학 I 테스트 준비 I 스템
Carrollton Campus : 214-716-7913
Frisco Campus : 469-535-3333

Julie Kim Piano Studio
김효정 소피아
피아노 레슨
kimpiano.com
문의 : 469-678-9413

북나라 BOOK NARA
캐롤톤 H마트 몰 옆
- 7days open
Tel 972-245-2665
ddn365@gmail.com

dpc dallaspainconsultants
Body Pain, Back & Joint, Headaches
Dr. Bishoy Michaels
Clinic in Las Colinas
(214) 948-7700

맑음 헤어살롱
Tel 972-693-6247
코마트 옆

쿠쿠 정수기
쿠쿠 달라스 대리점
* 알카리 직수 냉온 정수기
* 공기 정화기 (비데, 샤워기)
문의 : 214-280-4405

강 론

사순 1주일입니다. 회개의 삶을 청하는 이 사순시기에 오늘 독서와 복음을 통해 죄와 그 유혹에 대해 묵상을 하게 됩니다. 죄는 한 마디로 하느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혹은 하느님을 거스르도록 이끄는 것으로 우리 사람에게는 생명과 그리고 선과 악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곧 생명과 관련한 유혹, 그리고 선과 악의 문제와 관련한 유혹이 매우 근본적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유혹을 벗어나 하느님과 다시 화해하는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유혹은 1차적으로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하려 합니다. 하지만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느님께 맡겨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생명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느님께 나의 생명을 다시 돌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마치 나의 것인 양 욕심을 부릴 때 죄가 시작합니다.

또 하나의 유혹의 근원은 자신이 최고가 되려는 유혹입니다. 하느님보다도 높아지려고 하는 유혹입니다. 교만의 유혹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려고 하는 유혹입니다.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려는 유혹입니다. 하느님과 그리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자신의 욕심으로 사용하려는 유혹입니다. 이 욕심은 대단히 크고 강력합니다. 생명에 대한 욕심과 함께 이 욕심을 조심하지 않으면 사람은 결국 하느님을 거스르게 됩니다. 생명에 대한 권한, 선과 악에 대한 권한은 하느님의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 하느님께서는 동산 한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성경은 유혹자로 뱀을 등장시킵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뱀은 에와로 하여금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열매를 따 먹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담도 역시 먹게 합니다. 이렇게 아담과 에와는 유혹에 빠져 하느님을 거스르는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 안에 뱀과 그 유혹이 항상 함께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방심해도 우리는 하느님을 거스르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자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슬기롭게 해 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그래서 여자가 열매 하나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자, 그도 그것을 먹었다.”

죄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무엇보다도 부끄러움입니다. 자신이 피조물임을 알게 합니다. 자신들이 정말 알몸인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합니다. 아무것도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알게 합니다. 자신들의 보잘것없음을 알게 합니다. 하느님이 참으로 생명과 그리고 선과 악의 주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 앞에서 피하게 됩니다. 하느님 앞에서 자신을 감추게 됩니다. 하느님을 떠나서 살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눈이 열려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두렁이를 만들어 입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십니다. 첫 번째 유혹은 빵의 유혹입니다. 생명의 유혹입니다. 살고 싶은 유혹입니다. 우리가 일상으로 겪는 유혹입니다. 재물의 유혹이고 소유의 유혹입니다. 많이 가져야 하는 유혹입니다. 빵으로 인한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하십니다. 빵 앞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느님을 조종하려는 유혹입니다.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려는 유혹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하느님이 아니라 내가 되려는 유혹입니다. 악마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 뛰어내리게 하고, 하느님께서 지켜줄 것을 유혹합니다. 만일 하느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하느님은 존재하지도 않고, 또 무능한 하느님이라는 유혹입니다. 이 유혹은 하느님을 나의 욕구와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도구로 삼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하느님께서 내 뜻을 따라야 한다는 유혹입니다.

이 유혹은 우리를 위선으로 이끌고 많은 사이비를 만들어냅니다. 하느님을 마치 자신의 도구인 양 사용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느님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느님의 말씀과 뜻에 순명하라 이르십니다.

세 번째 유혹은 하느님이 아니라 악마를 섬기라는 유혹입니다. 하느님이 아니라 하느님의 피조물인 세상을 섬기라는 유혹입니다. 단순히 빵과 같은 물질의 유혹, 그리고 하느님을 조종하려는 유혹을 넘어서 하느님이 되라는 유혹입니다. 교만의 유혹입니다. 유혹 중의 유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라고 이르십니다. 하느님이 되려는 유혹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우리는 하느님 앞에 참으로 겸손해야 합니다.

사도 바오로는 아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고 죽음을 겪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하느님과의 단절입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왔듯이, 또한 이렇게 모두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사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죄가 있었지만, 율법이 없어서 죄가 죄로 헤아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부터 모세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방식으로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죽음이 지배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를 그 죽음에서 구원하실 분이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실 그 한 사람의 범죄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죽음이 지배하게 되었지만, 은총과 의로움의 선물을 충만히 받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생명을 누리며 지배할 것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이가 죄인이 되었듯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이가 의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 순종하십니다. 하느님의 말씀으로 사시고,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순명하시며, 온전히 하느님을 섬기십니다. 이 사순시기를 지내면서 우리는 하느님께 돌아서야 합니다. 하느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빵과 거짓과 욕심이 아니라 하느님의 진리와 정의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느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섬기도록 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참으로 하느님이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주임신부 김남길 대건안드레아

공 지 사 항

2023년 사목 목표

“미사의 신비를 살아가는 공동체!”

1. 미사 참석의 의무를 다한다.
- 주일과 대축일 미사에 참석한다.
- 평일미사에 참석하도록 노력한다.
- 매일 기도 생활을 한다.

2. 복음, 곧 하느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삶을 청한다.
-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
-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한다.

● 2차 헌금
2/25(토), 2/26(일)은 흑인과 인디언 선교를 위한 교구의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사순시기 보속 (다음 중 선택)
1. 사순 특강 참여
2. 십자가의 길 3회
3. 성경 필사 (베드로 1서, 2서, 요한1서, 2서, 3서)
4. 평일미사 참여 3회
5. 선행 3회

● 중남부 여성 14차 꾸르실료 봉사자 모집
코로나 기간 동안 진행하지 못했던 꾸르실료를 달라스 컨퍼런스 포메이션 센터에서 개최하기 위한 준비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선착순 : 7명
마감 : 3/5 (일)
문의 : 이혜연 루시아 714-519-4432

수요 성경 공부 봄학기 개강

현재 탈출기를 공부하고 있으며 새학기는 탈출기 19장에서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등록은 사무실이나 수녀님께 해주십시오.
시간 : 3/8 (수) 10시 미사 후
장소 : 교리실
강사 : 이 세실리아 수녀 214-762-5794

● 헌금 봉사자 모집
10시 미사 후 헌금 봉사를 해주실 분은 사무실이나 수녀님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순 특강
주제 : “치유자이신 하느님”
일시 : 3/18 (토) 오후 6시-7시 30분
강사 : 이우희 소피아 수녀

선교 모금 강론
일시 : 3/18 (토) 5시 미사 중
3/19 (일) 10시 미사 중
* 이우희 소피아 수녀님은 아씨시 프란치스코 전교 수녀회 소속이며, 뉴멕시코 갤럽교구 소속, 예수 성심 피정의 집에서 인디언 원주민 사목을 하십니다.

● 12시 미사 성가대 모집
대상 : 첫영성체를 받은 학생 이상 (나이 제한 없음). 관심있는 분은 미사 전 11시 40분까지 성전 성가대 자리로 오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과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 봉성체 상식 아시나요?
* 봉성체는 성직자, 수도자는 물론 위임받은 평신도도 봉사할 수 있습니다.
* 봉성체 요청하실 수 있는 경우는
a. 1회 봉성체 : 병원 진료중일때
b. 간헐적 봉성체 : 정기적인 치료로 미사에 참여할 수 없어 간헐적으로 청할 때
c. 장기 봉성체 : 장기간 미사 참여 할 수 없을 때
*성당 사무실에 봉성체를 요청하시면 봉성체 봉사자에게 전달 됩니다.

점심 봉사 스케쥴

2/26	코펠	3/12	갈랜드
3/5	W 프리스코	3/19	알렌 멕키니

십자가의 길 기도 (미사 후)

날짜	미사 시간	구역
3/02 (목)	7:30 pm	알랜 매키니, 얼빙
3/10 (금)	10:00 am	갈랜드, W 프리스코
3/16 (목)	7:30 pm	캐롤톤, 던컨빌

축헌금		교무금					
이종국 (50) 복순 프레이저 (10)		조수명(2), 정미화, 신혜식, 박주원, 임주히, 박범영, 문혜숙(2), 이광현, 안인현, 임원범, 김정기, 이순례, 안헌식, 이민경, 김형성, 강영모, 박지선, 오영주, 강젬마, 남미경, 김영환, Caleb J. Segura, 이상학, 앤젤 켈러, 송수복, 유충석, 제임스 리, 강대진, 임승수, 김미화, 장하운, 이용수, 김은섭, 남달원, 복순 프레이저, 최연, 김세미나, 김을자, 염광수, 조종순, - 여러분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					
건축 계정	$197,130.49	건축	$60.00	교무금	$7,210.00	주일 헌금	$4,877.00
일반 계정	$559,455.33	2차 헌금	$137.00	터키 시리아 지진	$2,436.00	주일 총액	$14,720.00
지난주 평일 미사 참석자 수		화 24명	수 168명	목 18명	금 36명		
주일 미사 참석자 수		토 74명	10시 315명	12시 168명	3시 50명	**주일 합계**	607명